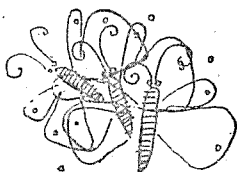


신출약(新出藥)들, 그 효과 석연치 않다

간 장 약



李 祥 鍾

반드시 의사의 지시 아래 써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약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약에 대한 성상(性狀)이라는가 약리학적 작용을 충분히 알고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고금을 막론하고 변치않는 철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약을 하기에 앞서 과연 그 약이 그 사람 병에 또는 현재 그 상태나 체질에 적당한지의 여부점을 생각할 때 흔히 문제가 생길때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어서는 엄연히 대부분의 약들의 투약에 있어서

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것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어떤약을 투약하든지 간에 그 약의 부작용이나 독작용 다시 말해서 역작용(逆作用)이 무엇일 것이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약을 잘못 사용해서 이익이 되는것 보다는 해를 입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간장병은 식이 안정이 주(主)

간장병에 있어서 간장약을 투약하는 자세도 역시 그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장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종류의 투약이나 주사만이 유일한 도움을 주는것같이 과대평가나 또는 착각을 하는일이 부지기수인데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치료원칙은 일반적인 요법과 식이요법 안정등이 주동적인 경우가 많고 약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될때가 적지 않다.

간장약이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류는 수백만종 이상으로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것을 크게 항지간 물질(抗脂肝物質)과 간제제(肝製劑)등으로 들수가 있다. 전자에는 코린종류, 매싸이오닌, 이노지톨 및 약산 바이타민 B₁₂ 및 리포케인 등이있고 이들은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과연 석연치 않은점이 적지않다.

이들은 우리들의 경험상 전염성간염이나 혈청성 간염등과 같은 급성간염에 대해서는 이익보다는 해로운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의견들도 있고 물론 증독성간염이나 간경변증에는 가끔 도움을 주는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간대사(肝代謝)에 부담주어 역효과 오는 수도

또한 같은 종류의 간질환이 있을때라도 보통 고단백식사를 충분히 소화 또는 흡수될 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식이내에는 이미 충분한량의 항지간물질이 천연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한 약의 제제로서 투약하는 것 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만일 천연에서 고단백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제제를 추가해서 투약한다면 오히려 간대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항지간 물질의 투약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간질환이 중태에 이르러 간성 혼수에 입박하면 단백질의 섭취량도 보통사람에게서 보다 훨씬 줄여야하고 항지간물질도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내의 암모

니아의 농도가 늘고 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간엑스제가 있는데 이것은 간기능을 촉진시키고, 간의 재생을 돕는다고 해서 동시에 투여하는 수가 있고 그외에도 오로딘산 및 치오척크산 제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간내에 행하여지는 대사기능을 돕는 것인데 그 작용도 과연 사람의 간질환에 일만큼의 도움이 주어지는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그외에도 신출약제들이 준비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미심한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우리가 주의할것은 간장병이 없는 사람들중 음주전후에 간장약이라고해서 매일 보약과 같이 착각을 하고 몇 개월씩이고 장기 애용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우리들의 입장에서서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다.

오히려 자연적인 체내의 간장대사에 먹칠을하거나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혀주거나 해로운 소화장애나 피부염등을 유발시키게 된 예들도 적지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원자=고려병원 넷과과장)

● 기생충 박멸 표어

간디스토마는 난치병이다
민물고기는 날로 먹지 말라

— 한국 기생충 박멸 협회 —